

신경증 외래 환자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및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이 흥 표[†]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외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및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상군은 신경증 외래 환자 97명이었다. 사회적 배척은 고립, 모욕, 괴롭힘 배척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척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또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배척 및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의 매개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배척, 고립 배척, 자살사고, 우울, 매개효과

[†] 교신저자: 이흥표,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Fax: 053-850-4019, E-mail: youbefree@dcu.ac.kr

사회적 배척의 역기능적 영향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 성장하고 발달한다. 사회적 수용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를 제외하고 출생시부터 갖고 태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선천적인 욕구이다. Bowlby(1973)와 Maslow(1968)는 생리적 욕구를 제외하고 안전 및 소속감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결핍 동기라고 하였으며 Baumeister와 Leary(1995) 역시 사회적 수용의 욕구가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수용과 지지에 대한 욕구가 원초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은 수용에 상반되는 집단내의 무시나 따돌림, 괴롭힘, 소외와 같은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배척에는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공존하거나 중첩될 수 있지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Woods와 White(2005)는 사회적 배척을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직접적 따돌림(direct bullying)과 관계적 따돌림(relational bullying)으로 구분하였고 Olweus(1993)와 최은숙(2000)은 소외형, 신체형, 언어형으로, 이춘재와 박금주(2000)는 직접적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권기준과 이홍표(2009)는 친구나 동료 사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뒤에서 쭈근거리거나 등의 간접적, 비신체적이며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등의 고립 배척, 물리적 폭력 대신 개인적 약점을 들추고 의견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고 창피를 주는 등의 인신공격을 하거나 모욕을 부과하는 방식의 모욕 배척, 그리고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하여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괴롭힘 배척의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한 후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사회적 배척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문제와 정서 장애를 유발한다. 사회적 배척이나 고립은 공격성(Buckley, Winkel, & Leary, 2004;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을 유발하고 자기패배적 행동을 증가시키며(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자존감을 저하시킨다(Leary, Tamber, Terdal, & Downs, 1995). 임상적, 진단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배척은 높은 수준의 침투와 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Mikkelsen, & Einarsen, 2002), 불안과 우울장애, 반사회적 행동(Baumeister, & Tice, 1993; Kendler, Kessler, Walters, MacLean, Sham, Neale, Heath, & Eaves, 1995) 및 두통, 복통, 수면장애, 비만 등(Gini, & Pozzli, 2009; Gunstad, Paul, Spiznagel, Cohen, Williams, Koh, & Gordon, 2006)과 같은 정신신체 질환 및 신경증적 장애를 유발한다.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배척은 심각하고 다양한 신경증적 장애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한 사회적 배척에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유형의 배척이 자살사고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척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Hinduja & Patchin, 2010; Yur'yev, Leppik, Tooding, Sisask, Varnik, Wu1, & Varnik, 2010).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배척의 피해자는 또래들에 비해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Arseneaults,

Bowes & Shakoor, 2010; Hay & Meldrum, 2010; Kim & Leventhal, 2008; Klomek, Marrocco, Kleinman, Schonfeld, & Gould,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외톨이-환자군은 비외톨이 환자군에 비해 우울과 더불어 자살사고를 보이는 경우가 높았으며(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은 따돌림 경험이 없던 학생들에 비해 자살 충동이 두 배가 높았다(최준영, 2007).

그러나 일반 성인이나 성인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척을 당한 비율이 명확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배척을 당하면 성인기까지 치료를 받게 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권기준, 이흥표,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 특히 심리치료나 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고립, 따돌림과 괴롭힘 등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연구는 수행되어 있지 않으며 광범위한 외상(트라우마)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성인들의 상당수가 외상을 경험하였고(안현의, 2005) 우울증 환자에게서 대인관계 상실 경험이 두 배 이상 높았다(Monroe, Rohde, Seeley, & Lewinsohn, 1999). 이런 관계의 상실이나 거절 등 대인관계의 붕괴를 경험한 사람은 상실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 장애의 유병율이

열 배 이상 높았으며(Kendler, Hettema, Butera, Gardner, & Perscott, 2003)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외톨이-왕따 환자군이 비외톨이 환자군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고 우울, 불안, 편집증, 사회 불안 등이 높았다(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또한 사회적 배척이 일종의 고립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고립된 감금 상태에 있는 죄수나 정신과 환자 성인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감금 상태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 시도율을 증가시킨다(Devorah & Trout, 2010; Felthous, 1997). 예컨대 사회적 고립이 심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자살율이 정상인구의 열배에 이르며 단독 감금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한 죄수들의 경우에는 자살 시도율이 정상 성인의 7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evorah & Trout, 2010; Kerkhof & Bernasco, 1990)). 이런 점에서 Slavich, O'Donovan, Epel과 Kemeny(2010)은 사회적 거절이 우울증의 발병과 강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 공황, 과각성, 경도의 편집 증상 등 다양한 신경증적 증상을 수반하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환자군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매개변인으로서의 우울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경로는 아직 불명확하다. 예컨대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울한 정서 상태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즉 사회적 배척이 다른 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우울감이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매개 변인(mediator variable)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사회적 배척이 직접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경로 1과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경로 2로 구성되는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 그리고 사회적 배척이 직접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가 유발하는 경로 2로 구성된 완전 매개(full mediation)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완전 매개 효과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들 및 사회적 배척과 우울 및 자살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매개변인으로는 우울을 포함하여 절망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 삶의 몰락, 인지적 몰락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와의 관계를 검증한 Chang(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박경(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무망감이 부분 매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의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부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김리자, 2011). 나아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실 도피, 수동적 삶의 자세, 현실 안주 등 인지적 몰락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아론, 이영순, 2011) 중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

살사고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포함한 삶의 의미가 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조하, 신희천, 2009).

그러나 이러한 여러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울은 자살사고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다. 우울이 임상적 환자군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여러 대상군에서 자살을 예측하는 제 1의 변인이자 매개 변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Arseneaults, Bowes, & Shakoor, 2010; Brent, Baughter, Bridge, Chen, & Chiapptta, 1999; Houston, Hawtoon & Shepped, 2001)에서 지지된 바 있다. 우울은 자살과 가장 상관이 높으며 자살 사고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요인이다(최아론, 이영순, 2011; Rudd, 1990). 청소년들의 경우에 우울감은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과 연관이 매우 높았고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정한 예측요인이었다.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은 우울감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살사고를 보일 가능성이 5.3배에 이르며(Juon, Nam, & Ensminger, 1994) 성인의 경우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자살시도의 비율은 6.5배에서 7.5배가 높다(전홍진, 2011; Jeon, Lee, Lee, Hong, Won, Cho, Kim, Chang, Kim, & Leventhal, 2011). Beck(1967)은 우울감보다 절망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Emery, Steer, & Beck, 1981; Petrie & Chamberlain, 1983)고 하였지만 Rudd(1990)의 연구에서는 절망보다 우울이 자살사고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우울장애를 포함한 신경증 임상 집단에서 자살사고를 가장 잘 예측한 요인은 우울이었다(Menesse & Yutrzenka, 1990). De Man(1999)은 우울감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 삼

의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Ang과 Huan(2006)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및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문적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는 우울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우울감은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사이에서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박병금, 2007). 그 외 홍영수와 전선영(2002), 김현순(2008), 박영숙(2009) 등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우울감이 모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척은 우울 장애와 증상을 유발하는 주된 외상적 요인이다(Cacioppo, Hawkley, & Thisted, 2010; Hawker & Boulton, 2000; Roland, 2002; Slavich, O'Donovan, Epel, & Kemeny, 2010). 따돌림과 괴롭힘 등 사회적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Hawker & Boulton, 2000; Klomek, Marrocco, Kleinman, Schonfeld, & Gould, 2007; van der Wal, de Wit, & Hirasings, 2003).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척은 정상인 집단과 신경증 집단 모두에서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이흥표, 이상규, 2012).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자살 사고에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수용이 인간의 기본적인 선천적인 욕구이고(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3; Maslow, 1968) 배척이나 거절이 생존과 발달 및 성장에 심각한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며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살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 주변의 지지와 관심, 수용 등 친사회적 수용도 배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지 못하였다(이흥표, 이상규, 2012). 그러나 사회적 배척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바, 배척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감이 자살사고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배척: 고립, 모욕, 괴롭힘 배척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성인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립, 괴롭힘 및 모욕 배척 중에 어떤 배척이 자살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배척 유형을 고립, 괴롭힘 및 모욕으로 구분할 때 직접적인 배척, 즉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이나 언어적 모욕의 경우에는 주체(가해자)가 분명하고 한정된 소수이며, 따라서 집단 다수의 성원들과 맺고 있는 상호작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명백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인관계의 순수한 고립(고립 배척)은 대개 형태와 방식이 모호하고 따돌림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대상에게로 귀인하거나 대항하기가 어려우며, 자신이 전체 집단 혹은 적어도 집단 일부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귀인하기 쉽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집단에서 낮게 평가당할 것이라는 자기 초점적 주의와

부정적 신념을 활성화시킨다(Voncken, Dijk, de Jong, & Roelofs, 2010). 이렇게 고립 배척에는 집단성원들과 맺고 있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상실, 단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권기준, 이홍표, 2009).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선조들의 환경에서부터 애착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집단을 이루고 살도록 진화하였다. 가족과 소규모의 집단은 생존과 성장, 번성에 필요한 보호와 양식, 조력자 등 생물학적,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기반이었다(Bowlby, 1973; Stevens & Fiske, 1995). 따라서 집단으로부터 순수한 고립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생존과 번식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감과 관계의 욕구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3; Maslow, 1968)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대인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고립 배척이 직접적인 모욕이나 괴롭힘에 비해서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사이버 볼 게임(Cyberball game)을 이용한 최근의 실험 및 뇌 영상 연구들에 의하면 컴퓨터 화면상에서 A와 B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C에게는 공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이러한 고립 배척만으로도 피검자 C에게서 삶의 의미 지각이 낮아졌고(Stillman, Baumeister, Lambert, Crescioni, Dewall, & Ficham, 2009)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였으며(Blackhart, Eckel, & Tice, 2007)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였다(Seidel, Silani, Metzler, Thaler, Lamm, Gur, Kryspin-Exner, Habel, & Derntl, 2013; Zwoinski, 2012).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복전측 대상피질(ven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vACC)과 우복측 전두엽(right ventral prefrontal

cortex; RVPFC), 전측 섬엽(anterior insula)과 같은 뇌 부위에서 신체적 고통을 당할 때와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Bolling, Pitskel, Deen, Michael, Crowkey, McPartland, Mayes, & Pelphrey, 2010; Eisenberger, Liberman, & Williams, 2003; Eisenberger, Matthew, & Lieberman, 2004). 즉 고립 배척이 신체적 고통을 당할 때와 같은 동일한 고통 반응을 유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추가 되는 직접적 폭력(direct bullying)이 아니라 관계에서 순수하게 어떤 사람을 배제, 소외시키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bullying)이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내재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Crick, Casas, & Ku, 1999; 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각성 수준도 가장 높았다(Woods, & White, 2005). 신경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이홍표와 이상규(2012)의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 정상군에 비해 신경증 환자들이 고립, 모욕, 괴롭힘 등의 배척을 경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괴롭힘 배척이 아니라 모욕 배척과 고립 배척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고립 배척이 우울과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신경증 환자군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를 증가키시고 특히 고립 배척이 모욕 배척과 괴롭힘 배척보다 자살사고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과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고립, 모욕, 괴롭힘 배척 중에 어떤 배척 요인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가설

1) 사회적 배척은 자살 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타인을 소집단에서 소외시키는 방식의 고립 배척이 직접적/폭력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 태의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보다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3) 사회적 배척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구방법

참여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서울과 강원 2개 지역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만 19세에서 54세였고 평균 연령은 31.42세(SD=11.85)였다. 진단군에서는 정신병적 장애와 성격장애 진단군을 제외하고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장애, 적응장애 등의 신경증으로 진단받은 신경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을 주 증상으로 하는 군은 우울장애에 포함하였으며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불안과 관련하여 진단을 받은 신경증 환자는 불안장애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대상자(N,%)
성별	여성	43(44.3)
	남성	54(55.7)
연령	10대	14(14.4)
	20대	41(42.3)
	30대	11(11.3)
	40대	24(24.7)
	50대	7(7.2)
학력	중졸이하	9(9.3)
	고졸이하	31(32.0)
	대재	36(36.1)
	대졸	20(20.6)
	대학원 졸	2(2.1)
	자영업	8(8.2)
	회사원	5(5.2)
직업	학생	43(43.3)
	주부	20(20.6)
	일용직	1(1.1)
	무직	9(9.3)
	무응답	11(11.4)
진단군	우울장애	69(71.1)
	불안장애	18(18.6)
	적응장애	7(7.2)
	기타 신경증	3(3.1)

측정도구

사회적 배척

사회적 배척은 권기준과 이흥표(2009)에 의해 타당화된 사회적 배척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척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따돌리고 고립시키는 형태의 배척을 반영하는 고

립 배척 4문항,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형태의 모욕 배척 4문항, 괴롭힘, 욕설,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의 직접적인 위협을 취하는 형태의 괴롭힘 배척의 3가지 하위요인 7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권기준과 이흥표(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5)에 의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및 윤애리(1995)가 타당화,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Beck 우울 척도는 4점 척도,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규 등(199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 반분 신뢰도는 .75였다.

자살사고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 및 Weissman (1979)에 의해 개발된 자살사고 척도(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사용하였다. SSI는 0부터 3점까지 4점 척도,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변형,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1이었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의 총점 및 하

위 요인들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고립배척, 모욕 배척, 괴롭힘 배척 중의 어떤 배척이 자살사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 단계별 투입을 실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척 및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세 단계의 독립적인 회귀분석 및 Sobel의 Z test를 실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회적 배척 총점 및 하위 배척 유형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사회적 배척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척은 우울과 .53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 유형 배척 중에서 괴롭힘 배척이 우울과 .39, 모욕 배척과 고립배척이 각각 .48, .48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배척 총점이 자살사고와 .44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하위 유형 배척 중에서는 괴롭힘 배척이 .37, 모욕 배척과 고립 배척이 각각 .37, .42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우울과 자살사고 간에는 .51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 중다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 실행이 가능한지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보통 공차가 1에 근접하고 분산확대지수가 10

표 2.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 및 우울간의 상관계수

변수	사회적 배척	모욕 배척	고립 배척	괴롭힘 배척	자살 사고	우울
사회적 배척(총점)	1.00					
모욕 배척	.93**	1.00				
고립 배척	.92**	.72**	1.00			
괴롭힘 배척	.68**	.62**	.63**	1.00		
자살 사고	.44**	.37**	.42**	.35**	1.00	
우울	.53**	.48**	.48**	.39**	.51**	1.00

** $p < .01$

표 3. 사회적 배척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 중다회귀분석, 단계별 투입 결과

	자살 사고			
	R^2	Partial Corr	Beta	t
고립 배척	.179	.423	.423	3.97***
모욕 배척	-	.137	.176	1.17
괴롭힘 배척	-	.118	.137	1.00

*** $p < .001$, Partial Corr=Partial correlation

이하이며 1에 접근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d값이 일반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양병화, 1998).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442~.547, 분산확대지수는 1.828~2.261로 VIF값이 10보다 현저히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test에서도 $d=1.449$ 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표준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본 결과, 전체 투입에서 세 가지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의 20.0%를 설명하였다 $R=.447$,

$R^2=.200$, $F=5.82$, $p<.001$. 단계별 투입에서는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의 17.9%를 설명하였고 $R^2=.179$, $Beta=.423$, $F=15.72$, $p<.001$ 모욕 배척과 $Beta=.176$, $t=1.17$, ns 괴롭힘 배척은 $Beta=.137$, $F=1.00$, ns 탈락하여 모욕 배척과 괴롭힘 배척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 분석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살 사고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44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 역시 자살 사고에 .51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 및 가설에 근거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완전 매개 효과와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중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중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고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인에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4와 같았으며 여기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묶어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

적 배척(독립 변인)이 우울(매개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eta=.53, p<.001$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중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eta=.44, p<.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사회적 배척과 우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사고를 중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사회적 배척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beta=.06, m$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 $\beta=.71, p<.001$ 즉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척이 중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고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귀분석과정

표 4.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Beta)	R ²	t
단계1 (독립→매개)	배척→우울	.54	.53	.276	5.45***
단계2 (독립→중속)	배척→자살사고	.34	.44	.192	4.14***
단계3 (독립, 매개→중속)	배척→자살사고	.05	.06	.551	.61
	우울→자살사고	.55	.71		6.9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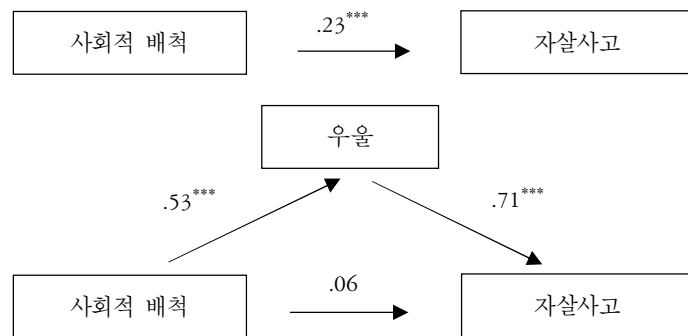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모형

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리고 표 4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완전 매개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그림은 자살사고에 대한 사회적배척의 직접 효과이며 두 번째 모형은 매개 변인(우울)을 통제된 후에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23으로 유의하였지만 우울의 통제 후 그 효과는 .06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Z 값이 산출되었다. $Z=4.27, p<.001$. 즉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의 표준중다회귀분석에서 사회적 배척 중에 모욕 배척과 괴롭힘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탈락하였고 고립 배척의 영향력만이 유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척 중에 고립 배척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을 때,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지,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다면 완전 매개를 하는지, 부분 매개를 하는지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았는데 1단계에서 고립 배척(독립 변인)이 우울(매개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eta=.48, p<.001$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2단계에서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eta=.42, p<.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beta=.09, m$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 $\beta=.70, p<.001$ 즉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였고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리고 표 5에서 고립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완전 매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첫 번째 그림은 자살사고에 대한 고립 배척의 직접 효과이고 두 번째 모형은 매개변인(우울)의 통제 후에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42로 유의하였지만 우울의 통제 후 그 효과는 .09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

표 5. 고립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β (Beta)	R ²	t
단계1 (독립→매개)	고립배척→우울	.92	.48	.227	4.82***
단계2 (독립→종속)	고립배척→자살사고	.62	.42	.174	3.92***
단계3 (독립, 매개→종속)	고립배척→자살사고	.13	.09	.557	.88
	우울→자살사고	.54	.70		7.2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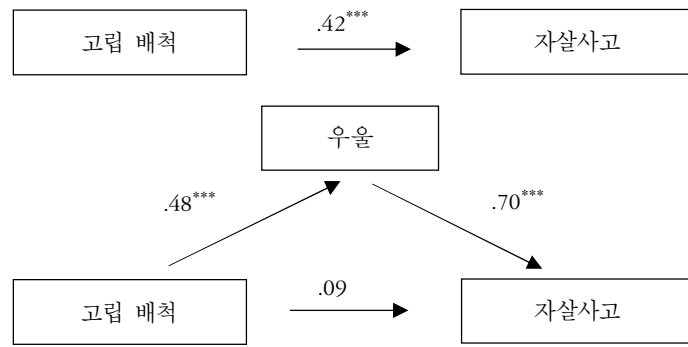


그림 2. 고립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모형

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Z 값이 산출되었다. $Z=4.02, p<.001$. 즉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우울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고립 배척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척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신경증 환자군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를 증가시키고 특히 고립 배척이 모욕배척과 괴롭힘 배척보다 자살사고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고립, 모욕 및 괴롭힘 배척 중에 어떤 요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울에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표준 중다 회귀분석 결과, 신경증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단계별 투입 결과, 세 가지 사회적 배척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고립 배척의 영향력이 17.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모욕 배척 및 괴롭힘 배척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사회적 배척, 특히 대인관계의 순수한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욕 배척을 포함하여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괴롭힘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았고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대인관계나 집단에서의 순수한 고립이나 따돌림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이는 사회적 배척이나 고립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Hinduja & Patchin, 2010; Yur'yev et al, 2010) 강압적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감금상태에 있거나 고립이 심할수록 자살 시도율이 증가한다(Devorah & Trout, 2010; Felthous, 1997; Kerkhof & Bernasco, 1990)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신경증 환자의 우울 증상 및 자신의 미래는 물론 친족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없

을 것이라는 부정적 자기 인식이 높았다(권기준, 이흥표, 2009)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거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단이 생존과 발달, 성장의 기반이며 집단에의 소속감과 관계의 욕구가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3; Maslow, 1968). 관계를 맺고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다. 관계는 자연적인 범주의 하나로 사람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거하여 외부의 대상을 구분하고 조직화, 저장한다(Sedikides, Olsen, & Reis, 1993). 사람들은 한번 맺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며 관계가 붕괴되거나 끝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Hazan & Shaver 1994). 또한 자신이 소속된 내 집단(ingroup)과 자신을 유사하게 지각하고 동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astano & Yzerbyt, 1998). 어떤 사람들은 집단의 소속감과 동일성을 극대화하고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한다(Pickett & Brewer, 2005).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수용과 거절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며(DeWall, Maner, & Rouby, 2009; Vohs, Baumeister, & Chin, 2007) 순응 행동이 증가하고(Williams, Cheung & Choi, 2000), 미래에 다시 만날 사람들과 다시 연결을 맺으려고 하는 등(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의 사회적 재연결 행동이 증가한다. 사회적 배척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이상 소속되지 못하다는 표시, 추방과도 같은 것이다. 집단에서 추방당한 것은 처벌과 같다. 실제로 선조

시대부터 인류의 집단은 집단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추방을 발달시켰고 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의 보호와 자원을 상실하였다(Kurban & Reary, 2001). 진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체가 소속된 집단은 음식을 공유하고 동료와 배우자를 제공하며 자손의 생산과 양육을 돕는 기본적인 자원이었다(Ainsworth, 1989, Axelrod, Hamilton, 1981). 수렵채집사회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과 채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동료는 자연의 위협과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돕고 방어해주는 근원이 되었다. 또한 집단은 배우자를 제공하고 자식을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친족과 동료들을 제공하였다. 가족 및 집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대감 잘 형성된 조상들일수록 사람들일수록 자손을 생산하고 번식에 성공할 적응 가능성이 높았다(Shaver, Hazan, & Bradshaw, 1988).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은 안전과 음식, 배우자 등 생존과 번식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Williams(2001)는 집단에서 소외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마치 “전기충격(stun gun)”을 당한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무시하도록 한 후 그 행동을 관찰하였다. 언어적 모욕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았고 자기 발 끝만 쳐다보았으며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실험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한 독립적으로 행동

하는 능력과 자기 주장 행동을 잃어버린 채 수동적이고 순응적으로 행동하려고만 했다 (Williams, Cheung, & Choi, 2000). 이렇게 배척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서 소속감 및 관계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배척, 특히 고립 경험은 고통에 반응하는 뇌의 영역에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심리적 고통(Eisenberger, Matthew, & Lieberman, 2004; Masten, Eisenberger, Brofsky, Piferer, McNealy, Mazziotta, & Daprette, 2005)을 유발하고 정신적 증상과 장애(Gini, & Pozzli, 2009; Mattiesen & Einarsen, 2004)를 낳는다.

이는 이흥표와 이상규(2012)의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고립 배척이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괴롭힘과 모욕 배척에 비해 높았고 특히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그 유형에 상관없이 배척이나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진화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은 그 대상이나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외부적 대상에 귀인하기가 쉽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 폭력과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바, 자신에게로 그 원인이나 이유를 귀인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반면에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배척은 은밀하게 혹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상(가해자)을 명확히 분별하기가 어려우며 그 원인 역시 분명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 귀인이 어렵고 자신에게로 그 원인을 귀인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런 내부 귀인과 자책이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흥표, 이상규, 2012). 이렇게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상실하고 소외당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수용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고립 배척의 영향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성인의 경우에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하여 그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직장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외와 고립형이 가장 많았고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은 빈도가 낮았다(신동엽, 박고훈, 2000).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인의 경우 직접적인 괴롭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우울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완전매개가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을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는데 고립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우울을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각각의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06, .09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배척이나 고립 배척은 자살사고

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는 사회적 배척이 우울이라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따돌림과 괴롭힘 등 사회적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Hawker & Boulton, 2000; Klomek et al, 2007; van der Wal, de Wit & Hirasig, 2003). 또한 우울감이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과 연관이 매우 높거나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들(Arseneaults, Bowes, & Shakoor, 2010; Brent, Baughter, Bridge, Chen, & Chiapppa, 1999; Houston, Hawtoon, & Shepped, 2001; Jeon et al, 2011; Juon, Nam & Ensminger, 1994; Menesse & Yutrzenka, 1990; Rudd, 1990)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들(김현순 2008; 박병금, 2007; 박영숙, 2009; 홍영수와 전선영, 2002; Ang & Huan, 2006; Rudd, 1990)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울은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역기능적 요인이며 매개 변인으로 시사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 및 기타 문제행동과의 직접적 관계나 영향을 검증하였을 뿐 매개 변인이나 중재 변인의 효과를 충분히 모색, 검증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와 달리 Twenge, Cataness 및 Baumeister (2002)는 사회적 배척이 자기 패배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정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정서적 고통과 부적 정서는 자기 패배적 행동을 매개하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부적 정서 단독으로는 자기 패배적 행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거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위협당하면 미래의 방향감각

을 상실하거나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사고에 실패하는 등의 인지적 와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척과 중속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Twenge, Cataness 및 Baumeister(2002)의 결과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실험 상황에서 정적, 부적 기분 척도(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Watson, Clark, & Tellegan, 1988)나 간이 기분평가 척도(BMIS; Brief Mood Introspection Scale; Mayor & Gaschke, 1988) 등으로 그 당시의 기분을 즉각적이고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배척이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낳고 정서가 중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건 당시의 즉각적이고 단순한 유쾌하거나 불쾌한, 나쁘거나 좋은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이 임상적 진단이 가능할 만큼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서 장애가 유발되어야 하며, 이는 만성적으로 사회적 배척이 지속되었거나 강력한 사회적 배척이 유발된 상황 혹은 배척으로 인해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나쁜 기분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연구한 피검자가 실험실에서 연구된 정상인이거나 대학생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상인들에게 우울, 특히 자살사고는 매우 드물거나 그 강도가 작고 일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척은 실험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인위적으로 주어졌을 뿐 지속적인 영향력이 부족하였으며 실험 이후의 역기능적 정서 상태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었다. 반면에 본 연구의 대상인 신경증 환자들은 오랫동안 정상인보다 사회적 배척의 경험

한 정도가 강하고(이홍표, 이상규, 2012) 이후에도 우울과 자살사고가 지속되었으며 그 강도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상 성인들과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사회적 배척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경로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바, 추후 정상인과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측면에서 우울이 아닌 다른 내적 요인들이 자살사고를 매개하는 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ery, Steer와 Beck(1981)은 절망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기 효능감(Cole, 1989; 송인한, 권세연, 정은혜, 김리자, 2011), 역기능적 문제해결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결핍(박경, 2004; De'Zurilla, Chand, Nottingham, & Faccin, 1998; Leenaars, 1996)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자살사고 및 행동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Baumeister(1991), Twenge, Catanese와 Baumeister(2003)는 사회적 배척이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을 유발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자에 의하면 인지적 몰락은 일종의 방어적 상태로 의미 있는 사고, 감정 및 자기-지각을 회피하게 만든다. 인지적 몰락은 내적 무감각(lethargy)과 시간 감각의 협소함을 수반하며 특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혐오적 자기 지각을 유발한다. 정서는 공허해지고 사고는 의미있는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의 즉각적인 결과에만 협소하게 초점이 국한되며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행동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며 게을러진다. 자살은 사회적 배척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혐오적 자기 지각으로부터 도피(escape of aversive self-awareness)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Baumeister, 1990). 사회적 배척이 고통스럽고 혐오적인 자기 지각과 부정 정서를 유발하고 혐오적 자기 지각을 회피하기 위해 인지적 몰락(시간적 초점의 제한, 사고의 구체화, 즉각적 결과에만 반응하는 것, 인지적 경직성, 의미의 거부)이라는 방어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인지적 몰락 혹은 혐오적 자기 지각이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다. Baumeister(1991), Twenge, Catanese와 Baumeister(2003)는 사회적 배척이나 거절이 인지적 몰락이나 혐오적 자기 지각을 거쳐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지는 검증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하면 매개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에 적어도 정서, 인지, 자기 지각의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척과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포함한 정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인지적 요인과 자기상의 변화 등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 및 중재 효과를 이해하는 통합적 접근 및 그에 근거한 경로모형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경로와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 그 중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증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괴롭힘과 따돌림 등으로 사회적 배척이나 거절을 단일화하지 않고 사회적 배척의 하위 요인을 순수한 대인관계의 고립, 언어적 모독, 신체적 괴롭힘 등으로 세분화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포함하여 신경증 환자들은 평가나 거절에 민감하고 관계 사고나 피해사고 등의 편집증적 경향성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 이런 경우 신경증 환자들이 사회적 배척을 실제보다 과잉 지각하였거나 배척 단서에 실제보다 민감하게 반응(Green, & Phillips, 2004)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횡단적 조사 및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통해 사회적 배척을 조사, 검증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회적 배척을 독립 변인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정신과 환자들이 경험한 배척 정도가 실제 높아서가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다른 정서적 변인이나 자기상과 관련된 변인들이 낮아서 사회적 거절이나 배척 정도를 높게 지각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종단적 연구나 실제 상황에서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신경증 환자와 정상 성인에게서 사회적 배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정상 성인 중에 자살 사고를 보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정상 성인 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김현순 (2008).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기준, 이흥표 (2009). 사회적 배척이 친족에 대한 자기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27-45.
 박 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 연구, 12(2), 96-106.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신동엽, 박고훈 (2000). 직장내 구성원의 부적응현상에 대한 연구, 따돌림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3, 1-51.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종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20-32.
 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청소년 정신과 환자중 외톨이 혹은 왕따 특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2), 240- 251.
 송인한, 권세연, 정은혜, 김리자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자살사고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99-217.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및 윤애리 (1995).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신경정신의학, 4(1), 77-95.
 이지현, 이정운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이흥표, 이상규 (2012). 사회적 배척이 정서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친사회적 수용경험의 중재효과 분석 - 일반집단

- 과 신경증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253-270.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 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춘재, 광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원호택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Ⅱ. 한양대학교 논문집, 12, 457-474.
- 전홍진 (2011). 우울증과 자살. 대한의사협회지, 54(4), 370-375.
- 조 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최아론, 이영순 (2011). 고교생의 학교계열,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 적 몰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61-784.
- 최은숙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21, 109-137.
- 최준영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관련 태도. 사회연구, 14(2), 223-238.
- 홍영수,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37, 133-143.
- Arseneault, L., Bowes, L., & Shakoor, S. (2010). Bullying victimization in youth and mental health problem: Much ado about nothing? *Psychological Medicine*, 40(5), 717-729.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power. *Science*, 211, 1390-139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of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aumeister, R. F., DeWall,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589-60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 497-529.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3).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65-195.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lackhart, G. C., Eckel, L. A., & Tice, D. M. (2007). Salivary cortisol in response to acute social rejection and acceptance by peers. *Biological Psychology*, 75(3), 267-276.
- Bolling, D. Z., Pitskel, N. B., Deen, B., Michael, B. D., Crowkey, M. J., McPartland, J. C., Mayes, L. C., & Pelphrey, K. A. (2010). Dissociable brain mechanisms for processing social exclusion and rule violation. *NeuroImage*, 54(3), 2462-247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Vol. 2) New York: Basic Books.
- Brent, D. A., Baugher, M., Bridge, J., Chen, T. & Chiapptta, L. (1999). Age-and sex- related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160, 105-114.
- Buckley, K., Winkel, R.,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acioppo, J. T., Hawkey, L. C., & Thisted, R. A. (2010). Perceived social isolation makes me sad: 5-year cross-lagged analyses of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Psychology and Aging*, 25(2), 453-463.
- Castano E, & Yzerbyt, V. Y. (1998). The high and lows of group homo-geneity. *Behavioral Processes*, 42, 219-238.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1279-1291.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Crick, N. R., Casas, J. F., & Ku, H. C.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76-385.
- De Man. (1999). Correlates of suicide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 105-114.
- Devorah, L., & Trout, M. A. (2010).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suicide.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0(1), 10-23.
- DeWall, N. C., Maner, J. K., & Rouby, A. D.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729-741.
- De;Zurilla, T. J., Chang, E. C., Nottingham, E. J., & Faccini, L. (1998).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nd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in college students an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091-1107.
- Eisenberger, N. I., Li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 290-292.

- Eisenberger, N. I., Matthew, D., & Lieberman. M. D. (2004). Why rejection hurts? a common neural alarm system for physical and social p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8(7), 294-300.
- Emery, G. D. Steer, R. A., & Beck, A. T. (1981). Depression, hopeless, and suicidal intent among heroin add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16, 425-429.
- Felthous, A. R. (1997). Does "isolation" cause jail suicid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Psychiatry Law*, 25(3), 285-294.
- Gini, G., & Pozzli, T. (2009).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psychosomatic problems: a meta-analysis. *Pediatrics*, 123, 1059-1065.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 americans.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 Green, M. J., & Phillips, M. L. (2004). Social threat perception and the evolution of paranoia. *Neuroscience and Behavioral Reviews*, 28, 333-342.
- Gunstad, I., Paul, R. H., Spiznagel, M. B., Cohen, R. A., Williams, L. M., Koh, M., & Gordon, E. (2006). Exposure to early life trauma is association with adult obesity. *Psychiatry Research*, 142(1), 31-37.
- Hawker, D. S. J.,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ical Psychiatry*, 41, 441-455.
- Hay, C., & Meldrum, R. (2010). 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 self-harm: Testing hypothesis for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39(5), 466-479.
- Hazan, C., & Shaver, P. R. (1994). Deeper into-attachment theory. *Psychological Inquiry*, 5, 68-79.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Suicide Research*, 14(3), 206-221.
- Houston, K., Hawtoon, K., & Shepped, R. (2001). Suicide in young people aged 15-24: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63, 159-170.
- Jeon, H. J, Lee, J. Y., Lee, Y. M., Hong J. P., Won, S. H., Cho, S. J., Kim J. Y., Chand, Kim, Y., & Leventhal, B. (2008).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0(2), 133-154.
- Juon, J. Nam, J. J., & Ensminger, M. E. (1994). Epidemiology of suicidal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Behavior Psychiatry Allied Discipline*, 35, 663-677.
- Kendler, K. S., Kessler, R. C., Walters, E. E., MacLean, C. J., Sham, P. C., Neale, M. C., Heath, A. C., & Eaves, L. J. (1995). Stressful life events, genetic liability, and onset of an episode of major depression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6), 833-842.
- Kendler, K. S., Hettema, J. M., Butera, F., Gardner, C. O., & Perscott, C. A. (2003). Life event dimension of loss, humiliation, entrapment, and danger in the prediction of onsets of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60, 789-796.
- Kerkhof A, J. F, M., & Bernasco, W. (1990). Suicidal behavior in jails and persons in the

- Netherlands: incidence,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s*, 20, 123-137.
- Kim, Y. S., & Leventhal, B. (2008).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0(2), 133-154.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Gould, M. (2007).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1), 40-49.
- Kurban, R., & Reary, M. R. (2001). Evolutionary origins of social stigmatization: The function of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Bulletin*, 127(2), 187-208.
- Lee, S. M., Lee, H. W., Cho, M. J. (2010). Lifetim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plan, and single and multiple attempts in a Korean nationwide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 643-646.
- Leary, M. R., Tambe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Leenaars, A. A. (1996). Suicide: A multidimensional malais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6, 221-236.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aner, J. E.,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withdrawal or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42-55.
- Masten, C. L., Eisenberger, N. I., Brofosky, L. A., Piferfer, L. H., McNealy, K., Mazziotta, J. C., & Daprette, M. (2005). Neural correlates of social exclusion during adolescent understanding the distress of peer rejec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4(2), 143-157.
- Matthiesen, S. B., & Einarsen, S. (2004). Psychiatric distress and symptoms of PTSD among victim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2(3), 335-356.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2-111.
- Menesse, W. & Yutrzenka, B. (1990).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0(3), 206-212.
- Mikkelsen, E. G., & Einarsen, S. (2002). Basic assumption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victims of bullying at work.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 87-111.
- Monroe, S. M., Rohde, P., Seeley, J. R., & Lewinsohn, P. M. (1999).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relationship loss as a prospective risk factor for first onse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606-614.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Psychology in the School*, 40(6), 699-700.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victim: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ualts(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Chichester: Jon Wiley.
- Peplau, L.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Peplau, L. & Perlman, D.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1-20).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etrie, K. & Chamberlain, K. (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 Pickett, C. L., & Brewer, M. B. (2005). The role of exclusion in maintaining ingroup inclusion. In D. Abrams, M. A. Hogg, & J. M. Marque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ion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Roland, E. (2002). Bullying,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Education Review*, 44, 55-67.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0.
- Sedikides, C., Olsen, N., & Reis, H. T. (1993). Relationships as natural categ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1-82.
- Seidela, E. M., Silanic, G., Metzlerb, H., Thalerb, H., Lammb, C., Gurd, R. C., Kryspin-Exnera, I., Habele, U., & Derntla, B. (2013).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vs. inclusion on subjective and hormonal reactions in females and males. *Psychoneuroendocrinology*, 6, August, In Press.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rgration of three behavior system.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pp.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lavich, G. M., O'Donovan, A., Epel, E. S., Kemeny, M. E. (2010). Black sheep get the blues: A psychobiological model of social rejection and depression.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5(1), 39-45.
- Stevens, L. E., & Fiske, S. T. (1995). Motivation and cognition of social life: A social survival perspective. *Social Cognition*, 13, 189-14.
- Stewart, S. M., Lam, T. H., Betson, C., & Chung, S. F. (1999). Suicide ide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ed mood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in Hong Kong. *Suicide Life-Threat Behavior*, 29, 227-240.
- Stillman, T. F., Baumeister, R. F., Lambert, N. M, Crescioni, A, W., Dewall, C. N, & Ficham, F. D. (2009).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686-694.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3). Social exclusion and the

- deconstructed state: Time perception, meaninglessness, lethargy, lack of emotion,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09-423.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van der Wal, M., F., de Wit C. A., Hirasing, R. A. (2003). Psychological health among young victims and offenders of direct and indirect bullying. *Pediatrics*, 111, 1312-1317.
- Vohs, K. D., Baumeister, R. F., & Chin, J. (2007). Feeling duped: Emotional, motivati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being exploited by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 127-141.
- Voncken, M., J., Dijk, C., de Jong, P. J. & Roelofs, J. (2010). Not self-focused attention but negative beliefs affect social performance in social anxiety: An investigation of pathways in the social anxiety-social rejection relationship.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8, 984-991.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atson, D., Clark, L. A., & Tellega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w, W. (2001).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Woods, S., & White, E.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behavior, arousal levels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28(3), 381-395.
- Yur`yev, A., Leppik, L., Tooding, L-M., Sisask, M., Varnik, P., Wu1, J., & Varnik, A., (2010). Social inclusion affects elderly suicide mortalit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2(8), 1337-1343.
- Zwoinski, J. (2012). Psychological and Neuroendocrine Reactivity to Ostracism. *Aggressive Behavior*, 38(2), 108-125.

1차원고접수 : 2013. 06. 30.
수정원고접수 : 2013. 10. 10.
최종게재결정 : 2013. 10. 30.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Suicidal Ideation, a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Neurotic Outpatients

Heung Pyo Lee

Department of Art Therapy, Daegu Cyber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suicidal ideation and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were verified in neurotic outpatients. The subject group was 97 neurotic patients. Social exclusion was divided into three factors of isolation, insult, and bullying exclusion, and negative impact of isolation exclusion on suicidal ideation was assumed to be bigger than insult or bullying exclusion. As a result, social exclus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especially impact of isolation exclusion on suicidal ideation was more significant compared to the insult or bullying exclusion. Also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Depression was a very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ut the direct impacts of social exclusion and isolation exclusion on suicide ideation were not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ults.

Key words : social exclusion, isolation exclusion,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